

5월의 기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도다 <시편 52편 8절>



- 1.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 모든 가정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 내과의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한 삶

미국의 저명한 목회 카운슬링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상담한 후에도 답을 얻지 못하면 나가서 자살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목사님이 놀라며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직장을 잃어버려 수입이 없습니다. 내가 돈벌이 못하니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무능해서 교육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식욕이 좋은 저에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니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흰 종이와 연필 한 자루를 주면서 쓰게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있다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나에게 아내가 있다고 적고, 셋째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이 있으니 자식이 있다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에게는 건강이 있으니 건강이 있다고 적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부자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없다는 말은 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있는 것을 말할 때 삶에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볼 때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마음에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4년 솔로몬군도 성회"



지난 2004년 4월 16,17 양일간 열린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를 계기로 솔로몬군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었다. 솔로몬군도의 수도 호니아라 라손타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렸던 솔로몬 군도 성회에는 연인원 7만여 명이 참석하고, 3000여 명이 결신하는 등 변화와 치유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당시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말씀을 통해 내전으로 인해 갈등 속에 살았던 솔로몬군도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성회 첫날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기쁨을 제대로 표현 못했던 솔로몬군도 사람들은 둘째 날 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자 '아멘'으로 화답하고 환호를 하는 등 적극

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참석자들은 또 간단하고도 명료한 조 목사의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전했다.

인구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라고는 하나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었던 솔로몬군도 사람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속에서도 이를 주신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성회에 앞서 2월 15일 솔로몬군도 알란 케말케자 수상을 접견하고 담소를 나눴다. 2004년 4월에 개최되었던 솔로몬군도 성회는 솔로몬 오순절 교회 연합체인 SIFGA(Solomon Islands Full Gospel Association)가 주최하고 DCEM에서 주관했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4년 대만성회"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주관하고, 타이퉁교역자연합회가 주최하였으며 가오슝 화롄 타이난 교역자연합회가 후원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동부 연합 부흥대성회와 교역자세미나가 5년전인 2014년 4월 3~4일 타이퉁실내체육관과 타이퉁현예술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대회장 장신이 목사가 강사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고, 김경숙 선교사가 통역을 맡았다. 장 대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적 세

계는 진짜다. 기적을 가져온다. 2006년에 우리 생명천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2007년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4차원의 영성을 적용해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자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다. 모두들 꿈같은 소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며 기도응답의 감격을 전했다.

총재 조용기 목사는 대만 청중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만나자"고 당부했다. 또 조용기 목사가 "최근 대만에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고 있다"고 말하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는 신유기도를 한 후 기적을 선포했다. 오늘 고침 받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어 이들은 강단으로 나와 간증을 전했다.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이퉁성회 고문으로 성회를 준비한 정빠런 목사(가오슝 우창교회)는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가 타이퉁을 영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대만 남부와 동부, 남동부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야 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으려면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또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합니다.

이처럼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누가 마음을 다스리는가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는 자기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되자,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악한 마귀들이 점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을 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 세상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도를 계속 생겨나게 합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2.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면 이와 같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마음을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 나갑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30대 여인이 신앙상담을 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계적인 암 전문가였는데, 술을 많이 먹다가 중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처증이 생겨서는 날마다 칼을 들고 누구를 만났느냐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남편도 교회에 꼭 나왔어요. 마누라를 지키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1년 동안 저의 설교를 듣고 비평했습니다.

그랬던 그 남편이 그해 성탄절 설교를 듣는데, 자꾸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사무실로 오더니, “1년 동안 당신 바보 같은 설교를 듣다가, 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설교를 하는데, 내 머리로는 전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 당신 설교를 듣고 정신분열증이 걸린 것이니 책임져라.” 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걸 고쳐줄 약을 주겠다.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 성경을 가서 읽어라.” 그렇게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 그때 저는 ‘아! 성령의 역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니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생각을 마음에 꼭 채워야 하는 것이니

다.

3.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그렇다면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놓아야, 세상과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 공장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과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흔들여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생각이 꼭 들어차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용서와 의로움을 받고 생각이 꼭 들어옵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각이 꼭 들어차고, 치료와 건강의 생각이 꼭 들어차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꼭 들어옵니다. 부활과 영생천국의 생각이 들어찰 것입니다. 또 마음을 꿈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된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의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임하는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을 의지하면, 마음이 바다 물결 같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마음을 그대로 두면, 환경이 끊임 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따라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치료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환경에 치료와 건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축복이 있으면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힘차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4월의 성회들”



2004년 호주 시드니 한인성회



2006년 미국 부흥성회

Table with 4 columns: 개최 일자, 성회 명, 개최 일자, 성회 명. Lists various international church events from 1964 to 2019.



2013년 싱가포르 성회



2016년 대만 카오슝성회